

흙살림
HEUKSALIM



‘흙이란 무엇인가’ 흙의 인문학 개최



흙살림연구소는 오는 6월부터 매주 두번째 목요일에 충북NGO센터에서 흙을 이야기하는 <흙의 인문학> 강좌를 연다. 사진은 강사 중 한 명인 임옥상 화가가 2018년 6월에 만든 <흙의 얼굴> 모습.

흙살림 30주년 기념 인문강좌 시리즈 시인·화가·한의사 등 각계 전문가 강연

‘흙을 노래하고, 그리고, 살피 보다.’ 흙살림이 6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두 번째 목요일에 ‘흙을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인문학 강좌를 연다.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충북NGO센터(흥덕구 흥덕로 159) 대회의실에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두 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번 인문학 강좌는 오철수 시인, 임옥상 화가, 박석준 한의사 등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 7명이 다양한 시선으로 흙을 이야기하는 자리이다. ‘생

명의 어머니’인 흙이 갖는 의미를 농사를 넘어 문화, 예술, 과학의 자리에서 찾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이번 흙의 인문학 강좌는 2021년 30주년을 맞는 흙살림이 이를 기념하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 ‘흙과 생명과 환경을 살린다’는 창립의 뜻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번 강좌는 흙살림을 비롯해 충북여성살림연대, (사)충북시민연대, (사)흙과 도시가 공동 주최한다.

■ 강연자 및 강연 일정

회차	일시	강연자	강연 내용
1차	6월13일(목) 19:00~21:00	오철수	시인이 바라본 흙 -흙이 처음 시 속에 들어왔다
2차	7월11일(목)	오태광	자연과학자가 바라본 흙
3차	8월8일(목)	박석준	한의사가 바라본 흙
4차	9월19일(목)	정구인	여성 예술인이 바라본 흙
5차	10월10일(목)	권영근	인문사회학자가 바라본 흙
6차	11월14일(목)	임옥상	예술가가 바라본 흙
7차	12월12일(목)	이태근	토크 콘서트 : ‘흙’을 이야기하다

※강사일정에 따라 일정 및 순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친환경 도시농업을 일구자’ 흙살림, 제8회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 참가

지난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청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제 8회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가 열렸다. <생명문화도시, 농업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박람회는 그린오피스, 옥상정원, 기능성 텃밭 등 현재와 미래의 도시농업 진행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자리였다. 도시농업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차원을 넘어 참살이와 치유의 가치를 꽃피울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런 가치는 도시농업 속에 친환경적 농법이 더해졌을 때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이번 개막식에서 시티팜 토킹콘서트를 진행한 방송인 김미화 씨도 우리 농산물과 친환경, 토종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특히 유기농업을 어

렵게 생각하는데 "흙살림에서 친환경 농업에 대한 연구도 하고 여러가지 친환경 자재를 개발해 놓았기 때문에 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흙살림에서 식사도 하고 유기농업에 관해 공부도 하고 농사도 배웠다"며 친환경 농업에 동참하기를 희망했다. 흙살림도 이에 발맞추어 이번 박람회에 도시농부들이 보다 쉽게 친환경 농업에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시농업 자재들을 선보였다(사진). 폐천막을 재활용한 화분 그로우백과 화분에 심은 토종벼 등에는 관객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흙살림은 도시농업에서도 친환경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도시농업자재 등을 개발해 내놓을 것이다.

흙살림 HEUKSALIM

모두 짹

작물 병해 관리용 자재

- 곰팡이 병은 모두~~씩!!!!
- 농자재 사용을 확 줄일 수 있는 다기능 병충해 방제제!
- 미세가공으로 나노화된 유황에 흙살림 특허 미생물 기술까지 결합된 살균제!!
- 제독된 유황으로 약해 감소! 부식 감소! 침투 증가! 확산 증가!
- 식물체 내 물질운반에 도움을 주는 유황 공급으로 생육 및 품질 향상은 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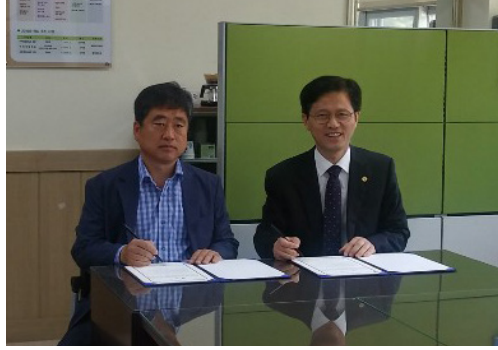
- 등록 번호 : 유기농업자재 공사-3-6-16
- 사용 방법 : 250배 희석액 엽면 살포
- 대상 병해 : 잎곰팡이병, 잿빛곰팡이병, 노균병, 무름병, 흑색썩음균핵병, 흰가루병, 뿌리혹병, 탄저병, 잎집무늬마름병, 도열병, 흰잎마름병

사진으로 보는 5월의 활동



충북친환경고구마사업단 준비위원회 구성

흫살림은 지난 5월 9일 고구마 생산농민, 농업기술원 전작팀, 충북고구마 사업단과 함께 충북 친환경고구마 사업단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준비위원회는 친환경고구마 생산과 판매 등의 체계적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충북생명산업고와 상호협력 창업인력양성 교육 등 협조

흫살림은 5월 10일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창조혁신관 회의실에서 충북생명산업고와 농산업체간 창업인력양성을 위한 상호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농업 교육에 관련된 학습, 기술정보를 상호 이용·교환하고, 농업 교육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상호 협조하기로 하였다. 또한 농업인턴십 추천 등 후계 농업인력 육성교육 등에 대해서도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다.

땅심 살리는 퇴비 만들기<18>

톱밥퇴비 쓰면 선충 피해 감소

■ 톱밥퇴비의 시용 효과

▲ 시용 효과

● 유해선충(근류선충, 근부선충)을 포식하는 대형 선충이 많이 증식하여 선충 피해가 감소될 수 있다.(실험 예;대형 선충 1마리가 2주일 동안 1,332마리의 유해 선충을 포식한다.) ● 토양 병원균의 발생을 방지하는 힘이 강해 채소의 탄저병, 입고병, 위조병, 문우병 등에 효과가 있다. ● 연간 3톤 이상씩 사용하면 시설재배에서도 연작이 가능하다. ● 다른 유기질에 비해 토양에서 보수력과 보비력 및 통기성이 매우 뛰어나다. ● 다른 유기질에 비해 미량 원소(미네랄)가 많다. ● 다른 유기질에 비해 지속성이 높으며, 토양유기물(부식) 함량이 높아 땅심을 높이는 데 뛰어나다.

▲ 시용 기준량

● 300평 당 500~3,000kg을 표토 10~30cm에 시용한다.
● 분(포트)의 경우에는 작물에 따라 흙 용적의 20~50% 시용한다.

종류 구분	300평당 시비량	비고
엽채류	0.5~1.0톤	
근채류	0.5톤 이상	
과채류	1.0~2.0톤	
벼, 맥류	0.5~1.0톤	
화훼류	1.0~2.0톤	
과수	고목 1그루당 20kg, 중목 1그루당 10kg, 소목 1그루당 3kg정도	밀거름 또는 멀칭
정원수	묘목 m ² 당 2kg	옮겨심을 때 뿌리돌림, 멀칭
잔디	0.5~1.0톤	

▲ 주의 사항

● 미숙 톱밥퇴비는 독소가 잔류하고 있으니 사용하지 않는다.
● 톱밥퇴비는 너무 마르면 분해가 멈추고 수분 흡수를 제대로 하지 않으므로 보관할 때 함수율 30%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질소 성분이 낮은 톱밥퇴비는 영양 부족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 시험 결과(과수유목)

- 톱밥퇴비를 사용한 뿌리의 발달

구분	주근량(g)	세근량(g)	비율(%)	퇴비 사용량
톱밥퇴비구	174.0	143.5	180	1그루당 600g
계분구	173.1	79.5	100	1그루당 440g

일본 시범 밀감재배원(2년간 시험)

- 톱밥퇴비를 사용한 어린 사과나무(부사) 새순의 생육

구분	새순의 길이(cm)	비율(%)	퇴비 사용량
A	49.3	113	1주당 5kg
B	54.5	125	1주당 10kg
C	43.5	100	1주당 0kg

경북대학교 농과대학

글 석종욱 (사)흫살림연구소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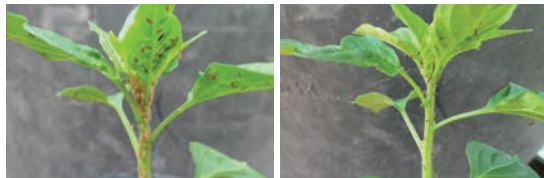
발행소 충북 괴산군 불정면 한불로 1136(영천리 528) | 발행처 (사)흫살림연구소 | 발행인·편집인 석종욱 | 편집위원장 경우창 | 편집위원 박석준 오철수 | 등록번호 충북라010-25(1998년 9월 3일) | 본부 (28002)충북 괴산군 불정면 한불로 1136·전화 043)833-8179·전송 043)833-2959 | 오창사무소 (28126)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85(각리 642-6) 오창벤처단지 안·전화 043)216-8179·전송 043)216-2959 | 청주센터 (28138)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대울다락말길 93-13·전화 043)212-0935·전송 043)216-0936 | 토종연구소 (28000)충북 괴산군 불정면 쇠실로 286-138(삼방리 186-1)·전화 043)833-5004 | 흫살림연수원 (28002)충북 괴산군 불정면 한불로 영천6길 11-1·전화 043)833-5004

잘들어총

작물 총해 관리용 자재



-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잘들어는 여기까지!!!
- Level up! 최상의 상태로 재 탄생!!!
- 지긋지긋한 총채벌레, 이제는 잘들어총으로 해결!!!
- 잔류농약은 당연히 불검출!



진딧물 처리 전

진딧물 처리 후

- 등록 번호 : 유기농업자재 공시-3-5-007
- 사용 방법 : 1000배 희석액 엽면 살포
- 대상 해충 : 진딧물, 총채벌레, 벼멸구

식물추출물

씩들어

작물 총해 관리용 자재

- 초강력! 살충제 등장!!!
- 그 무엇보다도 비교 불가!
- 싹! 들는 흫살림 최신 살충제
- 마늘유 함유로 살충 효과는 기본!
- 해충 기피 효과는 보너스로 1+!!!



진딧물, 응애 효과 사진

잎벌레 효과 사진



- 등록 번호 : 유기농업자재 공시-3-5-047
- 사용 방법 : 1000배 희석액 엽면 살포
- 대상 해충 : 진딧물, 응애, 잎벌레, 각지벌레, 선녀벌레, 가루이류

1미터 넘게 넝쿨성으로 자라는 납떼기콩

윤성희 소장의 종자 이야기<8>

다양성과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우리 콩<上>

유전자조작이라는 신기술이 콩과 식품을 지배하는 시대에, 우려와 걱정을 한 번에 날릴 수 있는 개인으로서의 한 가지 선택이 있다면, 그 것은 바로 조상이 물려준 소멸되어가는 토종 콩이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상들이 우리 콩에 있는 수많은 유전적 다양성을 슬기롭게 전통식품에 녹여냈듯이, 우리도 다양성을 버리지 않는다면 다양하고 좋은 많은 식품을 창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콩 태의 기원

수년전 경주시 월성에서 발굴된 1,600여 년 전 목간에서 당시 재배되거나 사용되던 작물 몇 종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발굴을 담당한 박물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전략) ...이전에 526년 혹은 586년으로 짐작되는 ‘병오년’(丙午年) 목서 목간이 나온 월성 해자에서는 이번에도 신라 사회의 일면을 보여주는 목간들이 발견됐다. (중략) 내용은 당주가 음력 1월 17일 곡물과 관련된 사건을 보고하거나 들은 것으로, ‘벼 세 석, 조 한 석, 피 세 석, 콩 여덟 석(稻參石粟壹石稗參石大豆捌石)’이라는 곡물과 수량을 기록했다(하략)”고 했다.



그림1. 1600여년 전의 신라 목간. 콩(大豆)이 기록되어 있다.

나열된 곡물은, 음력 1월 17일 이라면 예나 지금이나 주요행사인 정월 대보름 경이므로, 당시 먹던 ‘약밥’용 주재료 일 수 있다. 목간에서 보듯이, 콩을 의미하는 大豆라는 글자를 세워서 쓰다보면 두 글자가 겹쳐져서 大자가 太자로 써질 수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아마도, 이 목간은 우리나라만 사용하는 콩 태자의 기원을 짐작케하는 문화재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본다.



그림2. 부채콩. 콩 줄기의 끝에 꼬투리가 뭉쳐서 달린다.

1. 부채콩
이름조차 특이한 부채콩은 유한신육형 콩으로 꽃이 줄기의 끝에 모여서 피기 때문에 콩꼬투리가 한 곳에 뭉쳐서 달리고 마치 부채와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즉, 콩대가 끝으로 갈수록 맨드라미처럼 점차 넓게 퍼지고 그 끝에 꼬투리가 밀집한 형태로 다닥다닥 붙게 되는 아주 개성 있는 중소형 콩이다.

2. 납떼기콩
국내 유명화장품 회사에서는 토종콩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해오고 있다. 서리태를 이용한 상품, 제주푸른콩을 이용한 화장품, 납떼기콩을 이용한 화장품, 그리고 콩잎을 이용한 화장품 등으로 이들 콩에서 항산화·항노화 성분이 함유된 것을 찾아내서 세계적인 화장품으로 키워나가고 있다. 이 중에서, 이름도 생소한 “납떼기콩”은 분류학적으로 재배종과 야생종콩의 중간형(반재배종) 콩으로, 학명도 *Glycine*



그림3. 납떼기콩. 재배되는 반야생콩으로 1m이상 넝쿨로 자라고 콩알이 작고 매우 납작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grasilis 로 대두(콩)와는 種명이 다르다. 이 콩의 자생여부는 바빌로프의 유전자 중심설에 따라 콩의 원산지를 규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된다. 1993년경 농진청 종자은행의 조사에 의하면 농가가 재배하는 것 외에 야생에서 자생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러한 반야생콩의 발견은 한반도가 콩 원산지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학술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농가에서 재배되는 납떼기콩은 껍질색이 검은 것과 갈색인 것 두 종류가 있으며, 콩알이 매우 작고 납작하여 콩나물을 기르면 품질이 매우 좋았다고 한다. 식물학적으로는 무한신육형이라 1m 넘게 자라는 넝쿨성으로, 잡초 속에서도 생존하는 강인한 야생성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해 납떼기콩을 심어서 잡초를 빨리 덮게 하여 잡초억제 효과가 있는지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콩과작물이므로 토종 녹비작물로의 활용 가능성도 확인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3. 보각다리콩
한국토종연구의 대부인 안완식

박사의 『한국토종작물자원도감』을 보면 보각다리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경북의 영천, 월성, 경주지방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키가 크지 않은 콩이다. 이 지방에 잘 적응이 되는 보각다리콩은 ‘보각다리, 부각다리, 부악다리’ 등으로 부르는데, 뽀얀 색 콩이 다닥다닥 많이 달린다는 뜻일 것이라고 한다. 보각(步脚)은 몸마디에 붙어 기는데 쓰는 발로 가지가 많다는 뜻으로 본다. 콩이 작고 납작한 편이며, 우윳빛처럼 하얀 황백색으로 장콩으로도 쓰이지만 주로 콩나물 콩으로 많이 이용한다.】



그림4. 포항에서 수집된 보각다리콩. 작은 콩이지만 정말로 뽀얀 피부이다.

글 윤성희 토종연구소 소장
※ 토종콩 소개는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한국유기농인증원

한국유기농인증원은 좀 더 나은 농업농촌을 생각하는 소비자들과 친환경농업농가의 참여로 자립하는 인증기관입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신념과 철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축산물, 유기식품, 취급자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유기농인증원의 전문적이고, 간간한 인증시스템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더욱 신뢰하는 친환경농업, 농가에게 희망이 되는 친환경농업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청주시점 주소 (28119)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로 20, 거목빌딩 408-2호
전화 043-715-9526



“차광제 효과로 한여름 한 달을 더 키워요”



차광제를 바른 김일봉 농부의 하우스(노란 점선 안)는 다른 하우스와 비교해 하얀색을 띠고 있다.

청년귀농장기교육 일지

“바른 농사를 짓자”

5월인데 성급하게도 벌써 여름이 왔나 보네요. 뜨거운 햇볕 아래 예비청년농부들은 선도농가를 찾았습니다. 직접 실습도 해보고, 농사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충주의 임형락 농가에서는 상추를 수확해보았습니다.

귀농 초기 희망에 부풀었다 절망의 시기를 이겨내고 다시 희망을 보게 된 사연과 함께 말이죠. 수확은 <빨리빨리> <많이많이> 보다는 <정성스레>가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빨리 엉망으로 수확한 상추보다 늦더라도 정성스레 포장한 상추가 훨씬 값어치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음성의 성기남 농가에서는 고추망으로 지지줄을 세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고추를 두줄로 재배해 고추망을 이용하는 방법이 수확량 증가와 함께 많은 장점이 있음을 배웁니다. 또한 농사란 <편리하게>, <돈 많이 벌게>가 아니라 <바른> 농사여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봅니다. 물론 바른 농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청년이라면 어려운 길이라 하더라도 한번쯤 온 힘을 다해 도전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생산농가 - 김일봉(진천, 오이)

따가운 햇빛 차단하며 온도 하강 오이 성장점 타는 것 막아줘

충북 진천 초평면에 위치한 김일봉 농부의 오이 재배 하우스를 찾아가는 길. 멀리서도 언뜻 눈에 띄는 하우스가 있다. 주위 하우스와 달리 서리를 맞은 듯 새하얀 하우스다. “올해도 어김없이 차광제를 뿌렸다. 올해가 4년째다.”(차광제란 친환경 자연제거형 온실차광 코팅제를 말한다. 여름철 하우스 고온으로 인한 장애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단 1회 차광 코팅을 하면 여름 한 철 효과를 볼 수 있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김일봉 농부는 35년째 오이를 재배하고 있다. 1년에 2작

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여름 더위로 인해 오이 성장점이 타면서 첫 번째 작기가 일찍 끝나는 것이 늘 아쉬웠다. “차광제를 치면 성장점 타는 것을 막아줘 여름에 1개월 정도 수확을 더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하지만 시행착오도 있었다. 차광제를 사용한 첫해에는 물과 섞는 비율을 1:6으로 했는데 다소 진해서 가을에 비가 올 때 차광제를 닦아내기도 했다. “엽채류에는 괜찮은 농도인데 과채류에는 조금 진한 듯 하다”는 것이 김 농부의 생각이다. 그 다음해에는 1:9 비율로 시험했는데 옅어서 다

소 빨리 제거되는 바람에 효과가 조금 떨어졌다. 올해는 적정 비율을 찾아 1:7.5로 차광제를 코팅했다. “이 정도 농도면 가을 작기 시작할 때쯤 차광제가 자연스레 제거되면서 두 번째 작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오이는 이제 특정 지역의 산물이라기 보다는 전국에서 골고루, 계절과 상관없이 수확되고 있다. 한겨울에 강원도에서, 한여름에 남부지방에서 오이가 생산된다. 지역과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보니 길게 생산할수록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차광제 덕분에 수확시기가 길어졌다.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생각이다.”

한여름 따가운 햇빛을 막아주는 차광제가 농부의 구슬땀을 식혀주고,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고 있다.

친환경 자연제거형 온실차광 코팅제

뜨거운 여름철 아직도 고온장애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온실 온도를 **확!** 내려주고 생산량을 **쑥!** 올려줍니다.
저렴한 비용, 단 1회 차광코팅으로 여름철 하우스 고온 해결



한 번 시공으로 3~4℃ 온도 하강 효과

선택적 광차단으로 작물 생육 극대화 효과

광조절 코팅제와 설계기법을 도입한 국내 최초 고기능성 온실 차광제



구입/상담문의

(주)흙살림 043-216-2958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대울다락말길 93-13

늦서리 피해 고추 모종 심느라 부산

아가씨의 꿈이 자라는 허브 농장<8>

지역마다 기후 달라 정식 시기 차이

충남 서천의 5월 첫날은 올해도 못자리와 함께 시작한다. 금강 하류에 위치해 있어 너른 논이 많아 대표적인 특산물 중 하나가 쌀이다. 그래서인지 이 무렵이면 지역 내 어디를 가나 못자리를 볼 수 있다. 때로는 마을 공동 못자리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수 십 명의 인력이 동원되기도 한다. 마을에 사람이 많지 않아 몇몇 분들은 타지역에 살고 있는 자녀, 손자, 친인척까지 데려오신다. 중간 중간 다 같이 참도 먹고, 일이 끝난 후에는 마을 잔치가 열린다. 사실, 나에게 이러한 '품앗이'나 '두레' 같은 개념은 어릴적 학교 교과서에 서나 접하고 주관식 답안으로만 외웠던 개념이었다. 귀농을 하기 전까지 아파트 공동현관, 계단 청소도 외주용

역에 맡겨 버리는 도시에서만 나고 자란지라 이러한 모습이 참 낯설면서도 재미있고 신기했다. 5월 5일 어린이날 즈음엔 또 이곳저곳에서 밭에 고추 모종을 심느라 부산해 진다. 이전에 충북 지역에 머물렀을 때에는 마을 어르신들께서 “노지 고추는 늦서리가 무서우니 어린이날 지나고 심어야 해.”라는 노하우를 전수해 주셨는데, 서천에서는 ‘어린이날이 지나고 심어야 해’라고 말씀해 주신다. 아무래도 조금 더 남쪽, 바닷가 지역이라 차이가 나는 것 같다. 드문드문 보이는 밀과 보리, 양파와 마늘, 감자밭 외에는 황무지 같았던 들판이 조금씩 다양한 작물들로 채워지는 것을 보며 봄이 농익었음을 느낀다. 차를 타고 지나는 길 옆



허브를심을 밭에 퇴비를 뿌리고 모종을 옮겨 정식할 준비를 하고 있다.



풍경이 매일 달라지는 것이 재미있다. 뿐만 아니라 5월이 되니 장날에 모종을 파는 거리 노점이 급격히 늘어났다. 여기 저기 밭을 채우느라 분주한 분위기에 편승하고자 미처 씨앗을 심어 놓지 않았던 참외, 오이, 몇 가지 다양한 상추 모종을 사서 마당 한 켠에

심었다. 산을 깎아 만든 지 얼마 안 된 곳이라 양분도 없고 돌 섞인 산 흩이지만 잘 자라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액비를 연하게 희석시킨 물을 흠뻑 주고 주변으로 흙살림 유박도 조금 넣어 주었다. 5월 중순, 그동안 육묘장에서 애지중지 키운 모종을 밭에 정

식했다. 관리기 빌리는 순서가 늦어 심어야 할 시기가 약간 지나긴 했지만 바질 모종들은 잘 버텨 주었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올 한해 먹을 고추도 몇 주 안 되지만 직접 모종을 키워 심었다. 물 조절을 잘못했는지 키가 들쭉날쭉 해서 앞으로 줄을 땄 일도 걱정이야. 아직 뿌리가 덜 영긴 요한초나 스테비아는 6월이나 밭으로 옮겨질 수 있을 듯하다. 5월 21일, 절기 상 소만 전후로 또 다시 서천 전역이 모를 심느라 분주해진다. 트랙터와 이앙기가 바쁘게 움직일 때마다 모판을 건네는 사람들의 손도 바빠진다. 매일 밤, 물이 가득 차서 달님이 머물렀던 자리에는 하루 만에 초록빛 융단이 깔렸다. 이 모습은 이 모습대로 참 아름다웠다. 이곳은 산과 들이 가까워 가만히 있어도 계절감이 느껴지고, 한 달에 수 십 번씩 풍경이 바뀐다. 집에 큰 창을 내길 잘했다는 생각과 함께, 새삼스레 만족감과 감동이 밀려온다. 글 이수진 농부

봄딸기 당도 높으려 차광막 설치

가족의 행복을 꿈꾸는 딸기농장<8>

미니밤호박과 재배시기 겹쳐 진땀

딸기는 마무리 되어가고, 미니밤호박은 한창 손이 가는 시기이다. 두 가지의 일이 적절하게 나누어져야 우리 가족이 해결할 수 있는 구조이다. 봄딸기는 익는 속도가 빨라 당이 차기 전에 빨갛게 익기 때문에 새콤달콤 딸기가 나오기 어렵다. 올해는 그래서 딸기밭에 실험을 해보았다. 딸기들이 너무 빨리 익는 것을 늦추기 위해 차광막을 씌워줬다. 결과적으로 딸기는 참 좋았다. 과일의 경도나 당도가 훨씬 좋은 것이다. 그래서 직거래하는데 5월에도 반응이 좋았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숨어 있었다. 딸기가 아무리 좋아도 5월 초를 넘어가서는 딸기를 찾는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이다. 딸기 판매가 원활하지 않고는 5월까지 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다. 만약에 차광을 안했다면 5월 초순이면 끝이 났을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미니밤호박은 5월이면 손이 가장 많이 가는 시기라 일이 겹친다는 것이다. 매년 5월 10일 정도면 딸기는 거의 끝나 호박에 일이 옮겨갔는데, 올해는 딸기를 5월 중후반까지 하다 보니 일이 겹쳐 실 수 있는 여유가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딸기 판매 시기를 예년과 같이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하나씩 농장의 일에 균형을 맞춰야 너무 힘들이지 않게 된다. 미니밤호박은 벌써 중후반을 달려가고 있다. 달려간다는 표현이 적절하리만큼 빨리 자란다는 얘기가. 한달 정도 자란 호박은 모든 것을 다 빨아 들일 듯이 덩치를 키우고 자라는 속도가 보일 듯이 빠르다. 그러니 그 자란 아이들이 바람에 살랑이며 꼬이는 일이 다반사라 빨리빨리 잡아줘야 하고, 줄기가 나오는 만큼 결순도 나오기에 잘 정리해줘야



호박 수정을 해주고 네트에 유인을 해주고 있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더 자라게 놔둔다면 꼬이고 꼬여 풀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호박은 너무 빨리 자란다.

한다. 호박이 잘 자라주니 일이 수월할 것 같지만 자라는 속도가 빠른 만큼 호박은 그 빠른 시기에는 집중을 해줘야 한다. 다른 일을 겹쳐서 하기에는 손이 모자른다. 호박을 하다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 호박

은 얼키고 설키고 결순도 마디가 많기 때문에 많이 나온다. 한창 자라는 시기에 손을 잠시 놓았다가는 어찌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꼬이고 만다. 그러니 호박을 할 때는 호박만을 사랑해야지 또다른 사랑은 둘다 엉망이 되는 것이다.

올해 농사집 호박은 반은 손이 가고 반은 자유로운 영혼이다. 딸기를 5월 중후반까지 하다보니 이렇게 되었다. 딸기와 호박은 겹치지 않아야겠다는 중요한 결론을 내린 해이다. 이제 호박만을 사랑해 줄 시간이 되었다. 그래도 딸기로 생각지 않게 우리가 생각했던 매출의 정점을 넘어섰다. 올해는 택배도 하지 않았다. 주변 지역에서 직거래로 100% 판매했다. 조금 더 직거래 판로를 넓힐 필요가 있어 가까운 목포로컬푸드직매장에 낼 필요가 있음을 생각했다. 언제든 최악의 상황도 생각해야 하기에 판로를 다양화해야 한다. 올해는 한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딸기 직거래가 이뤄졌다. 딸기가 맛있다는 말이 좋은 뜻이었지만 부담도 가는 말이다. 농부로서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맛을 내는 일은 딸기나 호박이 할 일이다. 그래도 그런 ‘맛있다’라는 말에 기분 좋기도 하고, 농사집을 찾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삶을 이루는 들판에서 농부의 마음으로. 글 이남연 농부

두 가지 길의 현실적 근거 3



그리스로마적 형태에서 구성원의 거주지는 전투에 유리하도록 밀집한 형태를 취하게 되며 이렇게 밀집된 지역에서는 높은 곳에 공동의 신을 제사지내는 신전(아크로폴리스)을 짓고 그 밑에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정치와 상품 교환의 중심인 시장)을 중심으로 성벽을 쌓아 도시(폴리스, 키비타스)를 만든다. 이러한 도시의 형성과정은 아시아적 형태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방식, 곧 외적과의 전쟁에 대한 대비나 권력의 과시를 위해 먼저 성을 쌓아 도시를 만드는 방식과 대비가 된다. 이러한 조건 위에서 소위 말하는 그리스의 민주제가 나오는 것이지만 그것은 가장을 제외한 나머지 처자 등이 모두 노예가 되는 '가족(파밀리아familia)'으로 이루어진 씨족과 씨족이 모여 구성된 부족의 대표가 구성하는 평의회, 민회(민회) 등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는 각 씨족의 가부장이 분할지의 대등한 사적 소유자로서 씨족 사이에 서로 '자유롭고 평등한' 상호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지만 가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 구성원은 인격적 노예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가족 내부에서 인격적 노예 상태인 처자식 등에게 가부장이 존재하듯이 폴리스는 그러한 가부장(곧 시민)의

가부장으로 인식되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부모나 조상보다 더 신성한 폴리스의 명령을 따라 사형을 기꺼이 받아들여지게 된다.

문명은 분업에서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디딘다. 원시사회의 낮은 단계에서 인간은 자신의 수요를 위해서만 직접 생산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농업과 수공업 사이의 분업이 일어나며 교환을 위한 생산도 늘어난다. 이러한 교환의 일반화가 가능해지자 문명 시기 고유의 결정적 의미를 갖는 제3의 분업, 곧 생산에도 종사하지 않고 생산물의 교환에만 종사하는 계급인 상인을 낳았다. 그 전까지는 계급 형성의 원인이 거의 전적으로 생산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생산에 전혀 참여하지도 않고도 생산에 대한 지도권을 총체적으로 장악하여 생산자들을 경제적으로 자기에게 예속시키고 두 생산자 간의 필수불가결한 중개자가 되어 양자를 착취하는 계급이 출현한 것이다(『가족의 기원』).

그러나 이러한 계급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교환의 원칙(principle)이 있어야 한다. 교환이 지속적이며 확대되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등가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하다. 등가라는 보편적 가치, 곧 이데아가 필요한 것이다.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환상에 불과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이데아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그 공동체가 어떤 형태를 취하는가에 따라 달라졌다. 교환의 차이는 과학과 철학에서도 차이를 가져왔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자면 원자와 기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물질을 대하는 태도와 그에 따른 기술의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역시 달랐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농업과 의학이다.

기술은 사회구조와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기술에는 특정한 자연조건 속에 놓여 있는 사회에서 그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특정한 세계관과 방법론이 들어 있으며 사회는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도 하고 제약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기술의 발전은 사회의 발전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사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사회가 서 있는 자연도 파괴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사회는 자신의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조절하는 장치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적 형태에서 교환가치가 사용가치에서 분리됨으로써 마치 돈이 무한 증식을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그런 철학과 과학에 기초한 기술은 이제 무한증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의 과학기술 조절 장치를 파괴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세계다.

글 흥살림 동일한의원 원장, 동의과학연구소 소장

목도헌책방·사진관 개점



지난 5월 17일 충북 괴산 목도에 헌책방과 사진관이 열리는 것을 기념해 축하의 자리가 마련됐다.

“편안한 마을 놀이터를 꿈꿔요”

충북 괴산군 불정면 목도리, 한적한 시골의 도로변에 하늘색 건물이 새로 태어났다. ‘목도 헌책방/철수랑 시쓰기’와 ‘목도 사진관’이 나란히 들어선 것이다. 그런데 도시 한복판도 아니고, 시골마을에 새로운 가게라니,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철수랑 시쓰기’라는 공간의 주인인 오철수 시인은 “이곳이 내가 편안한 자리”여서 라고 말한다. 내가 편안하고 사람들이 편안해 하는 그런 터를 마련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오 시인은 이곳에서 정기적으로 시를 쓰는 모임을 가질 계획이다. 헌책방지기는 정우창 흥살림 이사다. 한국전쟁에 관련된 자료들을 모아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삶에 아직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려 한다. 헌책방 바로 옆엔 아기자기한 사진관이 짝꿍으로 있다. 휴대폰 속 손주들 사진을 인화해주고 마을 어르신들의 장수사진도 찍는다. 이영규 사진가는 “사진관보다는 놀이터가 되고 싶다”며 “사람도 고양이도 토끼도 멍멍이도 민들레도 다 기차게 찍어 드리려고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목도리 하늘색 건물이 조용한 시골마을에 어떤 바람을 불러올지 정말 궁금하다. ※ 헌책방과 사진관은 흥살림과 인연이 깊다. 오철수 시인은 흥살림 농장에서 1년간 농삿일을 배웠고, 이영규 사진가는 흥살림 농장이 위치한 괴산군 불정면 삼방리에서 장수사진 찍기 봉사를 했다.



목도헌책방 내부 모습.



목도사진관 내부 모습.

방 문



23년전 메타세콰이어 기증 한종관 씨 삼방리 농장 방문

5월 21일 한종관 씨가 흥살림 삼방리 농장을 방문, 소나무 전지작업을 진행했다. 한 씨는 23년 전 흥살림 괴산공장에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기증한 인연을 갖고 있다. 당시 사람 키 만했던 나무는 현재 20m 정도의 크기로 자라났다. 한 씨는 월간지 <샘터>에서 이태근 흥살림 회장의 이야기가 실린 기사를 읽고 연락을 취해 나무를 기증했다. “전 세계에 흙이 없는 곳이 없으니, 흥살림이 전 세계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는 덕담도 건넸다.



농식품부 차관 방문

제8회 대한민국도시농업 박람회 흥살림 부스에 이재욱 농식품부 신임 차관, 송용섭 충청도 농업기술원 원장, 이상혁 충청도 농정국장 등이 방문했다.



윤명혁 전 소장 등 방문

5월 20일 윤명혁 전 청주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석현 서원대 교수, 김대웅 이끌림 회장, 강형대 푸디스 사장이 흥살림 청주센터를 방문했다.



예약판매

하동 유기농 청매실

출고일

6월 10일(월) / 13일(목) / 18일(화) / 20일(목)



친환경 대추방울토마토 1kg
4,500원



친환경 방울토마토 1kg
5,500원



친환경 토마토 1kg
4,000원



슈퍼푸드 친환경 블루베리 100g
5,000원



밀키트플러스 삼겹살
17,000원



밀키트플러스 목살
16,500원



밀키트플러스 전지
13,500원



갯잎 장아찌 120g
3,000원



명이나물 장아찌
4,900원



유기농 표고버섯(동고) 500g
10,000원



친환경 느타리버섯 200g
1,500원



아해무 명장의 전통 참웃돈장
9,900원



채식식품! 삶은 맹종 죽순 500g
8,000원



무농약 양파 500g
1,300원



무농약 애호박 1ea
2,100원



무농약 적상추 150g
1,200원



무농약 브로콜리 200g
2,500원

이철수 판화가의 나뭇잎 편지

‘석류 여름’ 이라고 ...

여름을 이르는 갈래말도 다양합니다. 초여름이 갈여름을 겪고 있습니다. 파하 孟夏의 성하 盛夏를 체험하는 거지요. 날은 뜨겁고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어디날 바람이 거칠게 불고나니 밤낮이 번갈아옵니다. 습기있는 흙에서는 작물들이 영양분을 빨아올리지 못합니다. 가뭄에는 웃거름도 주지 않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무위당 선생님께서도 벌레할마리라는 의미의 '일충' 一蟲을 호로 쓰기도 하셨네요? 처음 보았습니다. 뜨거운 날씨에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을 새삼 벌레할마리처럼 보살겨 주는 존재입니다. 여기서는, 갑자건 그 여름을 '석류여름' 이라고 하셨습니다. ...



베트남 푸옌성 인민위원장 등 방문



베트남 푸옌성 팜 다이 즈엉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 12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5월 28일 흙살림 청주센터를 방문했다. 푸옌성은 흙살림이 (사)호아빈의 리본을 통해 살림두부 판매액을 통해 마련한 장학금을 기부하면서 인연을 맺고 있는 곳이다.



아이포름 아시아 회원 방문
지난 5월 10일 아이포름 아시아 회원 소속 연구자들이 흙살림 청주센터를 방문했다.

흙살림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개인 및 법인 등 단체 후원도 가능

친환경농업 교육 및 컨설팅, 유기농 정보지 제작, 친환경농업 연구 등 흙살림연구소의 주요 활동은 후원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흙살림연구소의 정기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생명이 숨쉬는 땅을 만들기 위한 한 톨의 밑알을 뿌려주세요. 후원금은 친환경농업기술 정보지 제작, 토종씨앗 보존 및 전파 등 우리 흙과 농업과 환경을 살리는 일에 소중한게 쓰일 것입니다.
문의: (사)흙살림연구소 사무국 043-833-5004, 후원금 및 회비 납부처: 농협 351-0763-0949-03. 사단법인 흙살림연구소.

키토신 플러스

토양 개량 및 작물 생육용

- 키토산을 나노 입자로 분해한 흡수가 빠른 품질향상 제품!
- 사용 작물에서 키토산 검출!!
- 과일 당도 증가, 경도 강화로 저장성 증대!
- 성장 및 뿌리 발근 촉진
- 영양 및 칼슘 보충과 병 예방을 한 번에!!!!



진딧물, 응애 효과 사진 잎벌레 효과 사진

- 등록 번호 : 유기농업자재 공시-3-3-238
- 사용 방법 : 500배 희석액 엽면 살포 및 관주처리
- 효능 효과 : 당도 증가, 칼슘 보충, 저장성 증대, 생육 및 발근 촉진, 병해 예방



■ 5월 후원회원 가입

황기하(부여), 정창조(충주)

■ 흙살림 후원회원 명단

강사영, 강승희, 고진환, 구현수, 권득산, 권사홍, 권오전, 김광부, 김규은, 김기현, 김남운, 김대수, 김대화, 김동연, 김동진, 김만수, 김명실, 김봉기, 김생수, 김수식, 김수철, 김숙원, 김영권, 김영란, 김영철, 김원섭, 김정승, 김준권, 김중상, 김홍대, 김행숙, 나기창, 나중연, 도재천, 라병현, 리양재, 리영환, 류훈희, 민성기, 박건혁, 박기환, 박동운, 박상일, 박승인, 박영구, 박영욱, 박정국, 박정규, 박종삼, 박종수, 박종원, 박종화, 박준순, 반명수, 방미진, 방영식, 백미숙, 백은남, 백은숙, 서성내, 서순악, 서위중, 서정수, 석종욱, 선호군, 성경숙, 성기남, 성윤제, 송기봉, 송동흙, 송미선, 송영환, 송인훈, 송지은, 신문수, 신미영, 신연관, 신종하, 신치영, 신현식, 심민보, 심정섭, 안정택, 염선업, 오과칠, 오복수, 오영세, 원희성, 우범기, 우중서, 원순자, 육종식, 윤국현, 윤성희, 이기출, 이명순, 이명환, 이민재, 이봉휘, 이성원, 이수일, 이연호, 이영민, 이영희, 이완호, 이일웅, 이재형, 이정필, 이준규, 이채원, 이철민, 이태근, 이필규, 임동영, 임원택, 임진수, 임한구, 임형락, 장동철, 장명숙, 장세규, 장소애, 전중화, 전홍택, 정구홍, 정규원, 정규태, 정기환, 정명순, 정방현, 정석조, 정쌍은, 정 은, 정인숙, 정정신, 정정천, 조기진, 조 솔, 조정인, 조종기, 조현국, 주윤식, 주현경, 진필경, 천호균, 최경주, 최관호, 최금열, 최병국, 최재학, 최춘식, 한정화, 허상오, 홍석민, 홍용기, 홍종윤, 황대호, 황영희, 황인걸
(주)ACT정다운여행사, 가림다마영농조합, (주)세인, (주)제일그린산업, 한국농식품인증원, (주)흙살림, (농)흙살림푸드
※기부금 영수증을 원하시는 분은 다음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070-4035-5979

■ 5월 흙살림 주요 활동

날짜	장소	구분	인원	내용
9일	청주	협약식	9	충북친환경고구마사업단 준비위 구성
10일	보은	협약식	22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업무협약 - 창업인력양성교육 등
15일	괴산	행사		흙살림영농조합법인 천렵
23~26일	청주	행사		제8회 대한민국도시농업박람회
29일	괴산	행사	80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토종 견학
30일	청주	회의	10	흙살림연구소 이사회



천연수용성칼슘제 유기튼튼칼

- 고순도의 미세한 탄산칼슘 분말을 천연유기산과 결합시킨 속효성 천연 수용성 칼슘제입니다.
- 칼슘은 작물과 과실의 조직을 튼튼하게 해주며 결핍을 예방하고 저장성을 높여줍니다.
- 전통방식으로 장기간 숙성시킨 목초액의 천연유기산이 작물의 양분흡수율을 높여줍니다.

- 등록 번호 : 유기농업자재 공시-3-2-58
- 사용 방법 : 생육 중 엽면 살포
- 적용 대상 : 배추 호박, 토마토, 상추, 브로콜리